

# 방심하면 해양사고 확인하자 안전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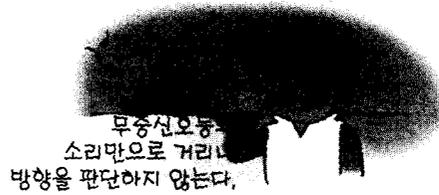
- 충돌사고예방편 -

해양사고방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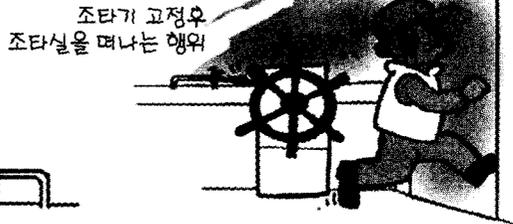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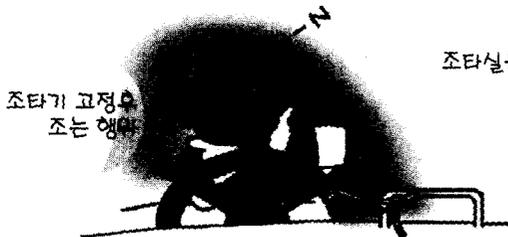
## 항해중 조타실 경계요령

### 조타실 경계요령



- 레이더를 조정하여 가장 좋은 영상으로 레인지를 자주 변환하여 본다.
- 조타실 외부의 소리, 풍파, 해수색의 변화정도, 부유물 등을 잘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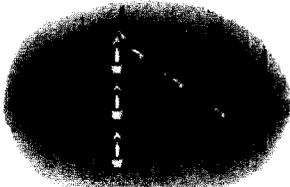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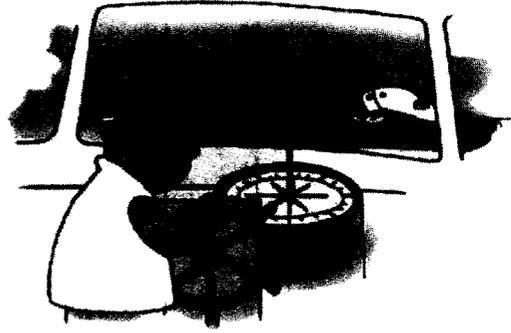
### 항해중 조타실 금지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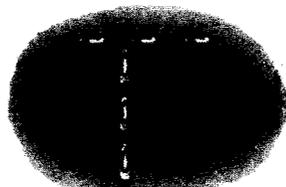
- 선박이 가까이 접근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도 조타기 또는 주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행위

## 충돌의 위험성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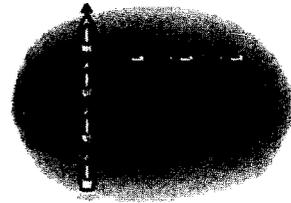
- 상대선의 방위가 현저히 변하지 않을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다.



상대선의 방위가 현저히 변하지 않을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다.



상대선의 방위각이 현저히 줄어들면 상대선이 본선의 선수를 통과한다.



상대선의 방위각이 커지면 상대선이 본선의 선미를 통과한다.

※ 대형선이나 예인선열이 근거리에서 접근하는 경우 방위각의 변화가 충분하여도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 조용항행 방지요령

- 항해전에 충분히 휴식하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 소파나 의자에 앉지 않는다.
- 자주 걷고, 환기 시켜 찬바람을 쏘인다.
- 커피, 코코아 등의 뜨거운 음료를 마신다.
- 선박의 위치 및 항해동향인, 기상정보정취 등 시간을 적절히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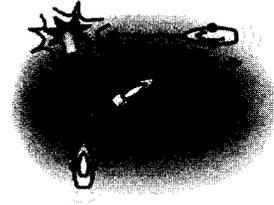




## 상호시계내에 있는 선박의 운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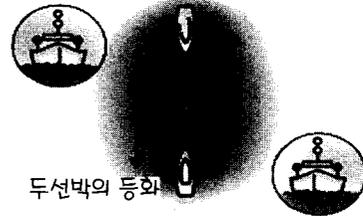
### 횡단할 경우

- 상대선을 우현측에 두고 있는 선박이 피하여야 하며, 가급적 상대선의 전방을 횡단하지 않는다. (좌현변침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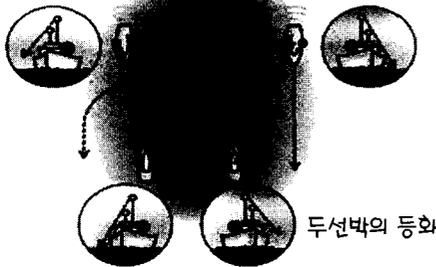


### 정면으로 마주치는 경우

- 각 선박은 우현측으로 변침하여 각각의 좌현측을 지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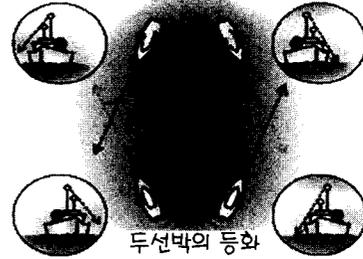
좌현VS좌현, 우현VS우현



두선박의 등화

- 좌현 vs 좌현의 경우에는 각각 우현으로 변침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 우현 vs 우현의 경우에는 우현으로 변침하여 좌현 vs 좌현으로 통과하려는 충돌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그대로 항행하여도 무방하다.

좌현VS우현, 우현VS좌현



두선박의 등화

- 가장 충돌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로, 조기에 피항동작을 하여야 한다.

### 추월할 경우

- 추월선은 피추월선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추월선은 완전히 추월할 때까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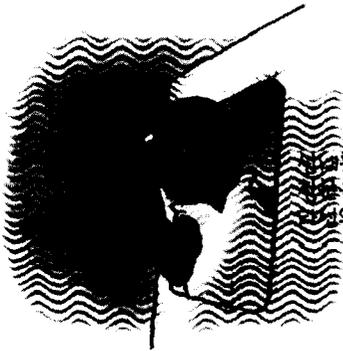
## 시계제한시 선박의 운항



저속으로 항해한다.



기적, 오종 등으로  
자선의 위치를 알린다.



소리를 조용히 하고  
항해하여  
신호를 신중하게 받는다.

레이더는 잘 작동하는지  
조정은 적절



- 레이더로 타선박과의 충돌위험을 인지하고 변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좌현으로 변침하여 전방에 있는 상대선을 피하는 행위(추월선의 경우 제외)
  2. 정횡 또는 정횡 후방에 있는 상대선 쪽으로 변침하는 행위
- 선박이 많은 곳에서는 자주 정선하여 타선박의 움직임을 확인한다.
- 레이더가 없는 경우에는 앵카울 내리고 시계가 양호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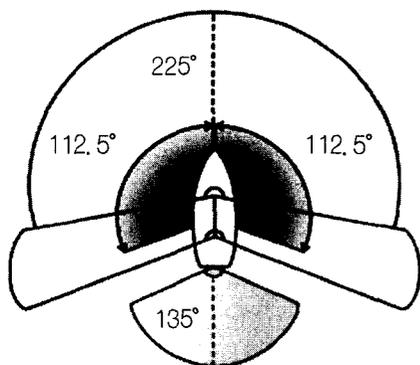
- 전방에서 나는 기적소리를 들었다.
-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물체를 전방에서 보았다.
- 어쩐지 불안하다.
- 레이더로 전방 10마일 이내에 타선의 영상을 보았다.
- 레이더로 전방 30마일 이내에 타선의 영상이 있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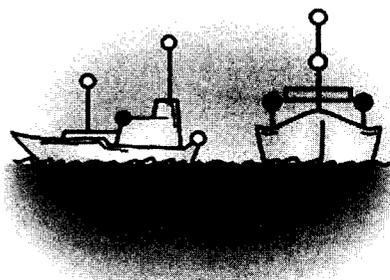
## 선박의 등화 식별요령

### 선박등화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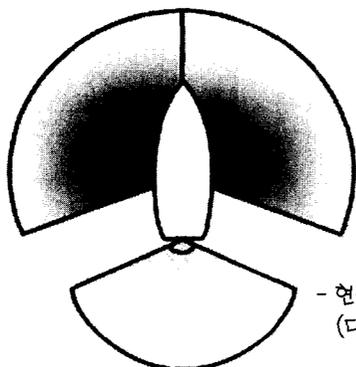
- 마스트 정부등 : 선체 중심선상에 설치하는 백등으로 225도의 수평 호를 고르게 비추고, 정선수로부터 각기 정황후 22.5도 까지 비추는 등화이다.
- 현등 : 우현의 녹등, 좌현의 홍등을 말하며 각기 112.5도의 수평 호를 고르게 비추고 정선수로부터 각현 정황 후 22.5도까지 비추는 등화이다.
- 선미등 : 선미에 설치하는 백등으로 135도의 수평 호를 고르게 비추며 정선미로부터 각 현 67.5도를 비추는 등화이다.
- 예인등 : 선미등과 같은 성능을 가진 황색의 등화이다.
- 전주등 : 360도의 수평의 호를 고르게 비추는 등화이다.



각 등화의 사광범위



- 마스트 정부등은 그 선박의 길이를 나타낸다.
- 50미터 이상 : 2개
- 50미터 미만 :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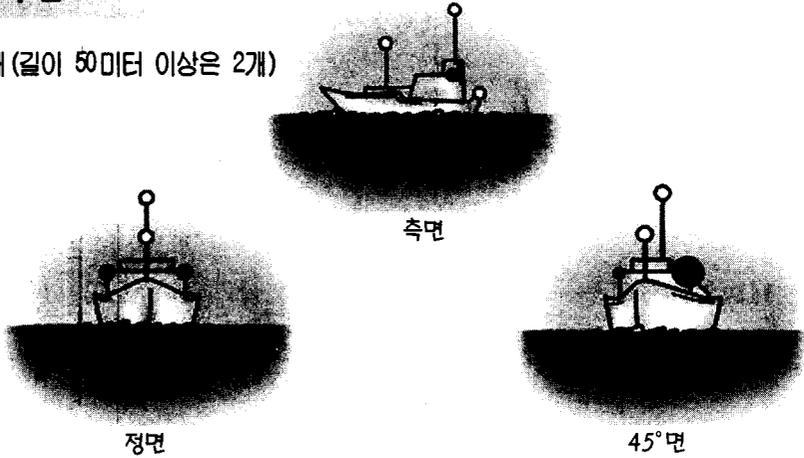


- 현등과 선미등은 선박이 항해중 (대수속력이 있음)일 때 켜다.

## 하해중인 동력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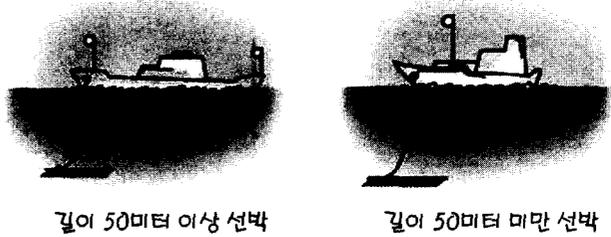
- 마스트 정부등 1개 (길이 50미터 이상은 2개)
- 현등 2개 (녹, 홍)
- 선미등 1개

- ※ 길이 12미터미만
- 백색 전주등 1개
- 현등 2개 (녹, 홍)



## 저박중인 선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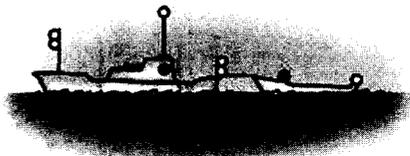
- 길이 50미터 이상 선박
  - 전부 백색 전주등 1개
  - 후부 백색 전주등 1개
- 길이 50미터 미만 선박
  - 백색 전주등 1개



## 예인선의 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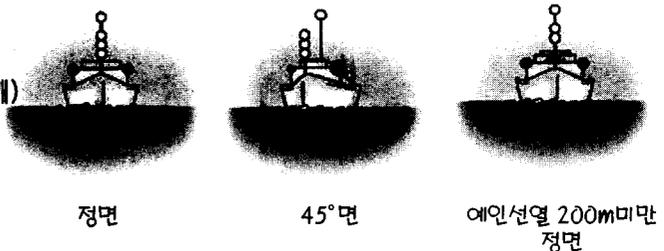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이상인 경우,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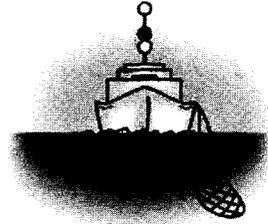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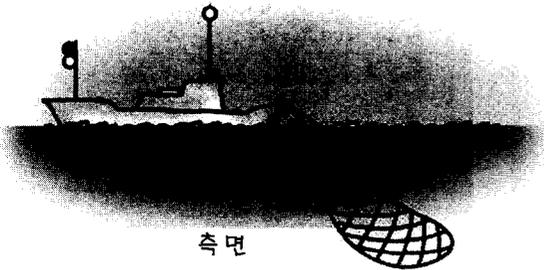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m미만인 경우, 측면

- 끌고가는 선박
  - 마스트 정부등 2개 (예인선열의 길이 200미터 이상은 3개)
  - 현등, 선미등
- 견고하게 연결된 선박 (압항부선)
  - 동력선과 같이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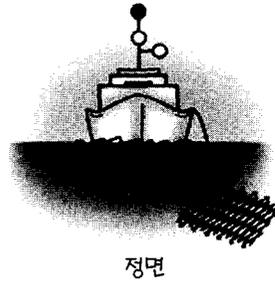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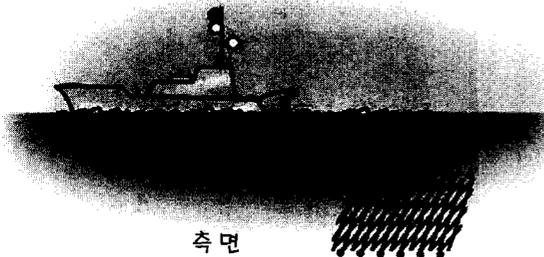


## 어르작업중인 어선의 등화

- 저인망 또는 수중에서 어구를 끄는 트롤어로에 종사하는 어선
  - 위는 녹색 아래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 대수속력이 있을 경우 현등과 선미등 추가



- 트롤어업 이외의 어선
  - 위는 홍등, 아래는 백색의 전주등 각 1개
  - 어구가 수평으로 150m이상 뻗은 경우, 어구 방향으로 백색 전주등 1개
  - 대수속력이 있을 경우 현등과 선미등 추가



### 주의사항

- 정면에서 보아도 상대선의 현등이 보이지 않을 경우가 있다. (현등의 부착이 바르지 못한 경우)
- 정면에서 약간 비껴보아도 상대선의 현등이 모두 보이는 경우가 있다.
- 전부 마스트등이 후부 마스트등 보다 높은 선박이 있다. (공선으로 선미트렁크 있을 경우)
- 등화의 밝기만으로 상대선과의 거리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축전지 방전)
- 어선은 조업방법상 소동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홈페이지 : <http://www.kst.or.kr>